

# 장성군민 83% “계속 살겠다”... 만족도 높아

전남 장성군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높은 거주 만족도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장성군이 공개한 '2019년 장성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민의 83.3%는 '이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생활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73.1%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복지·문화·관광분야'로 나타났으며, 군민의 과반수 이상이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군립도서관 등의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도시 브랜드 컬러마케팅인 '엘로우시티 장성'과 황룡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인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엘로우시티 추진 성과로는 '관광객 유입과 경제효과 창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축제 중에서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참여 비율이 70.5%로 가장 높았고, 장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유두석 장성군수(앞줄 가운데)와 주민들. /뉴스시스

생각한다는 응답 또한 가장 많았다.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0만원 이상 소득 비율이 45.6%로, 2017년(35.4%) 대비 10.2% 상승했다.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34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1.778명으로 2017년(1.641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겼다. 장성군민의 46.3%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 '15년 허송세월' 어등산사업 또 연장

〈관광단지 조성〉

매번 협상 결렬... 광주시 신뢰도 ↓ 낮은 수익성 예상에 사업자 불분명

광주시가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과 협상 결렬로 다시 무산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소득 없이 갈등만 남긴 채 15년을 보내고 앞으로 5년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 기간 만료일을 2019년 12월에서 2024년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광주 도시공사)와 토지 이용계획은 그대로 유지됐다. 전체 부지면적 273만6200여㎡, 건축면적 3만6500여㎡, 건축 연면적 14만3800여㎡ 등이다. 시설 지구별 건축 연면적은 공공편의 1800㎡, 숙박 10만3700여㎡, 상가 1만6500여㎡, 운동 오락 1만5700여㎡, 휴양문화 5900여㎡다. 부지 기준으로는 운동 오락 시설이 161만7800여㎡로 가장 넓다. 업체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결국 접었던 점을 고려하면 달라진 것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투자업체를 유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2005년 2월부터 사업 기간을 소득 없이 허비한 채 만료일이 닥치자 부랴부랴 기간을 연장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삼능건설, 금광기업(광주 관광 개발), 모아종합건설, 호반건설, 서진건설 등과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상을 이어왔다. 매번 결과는 사업 포기나 협상 결렬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존 개발업체와 투자금 반환 소송 끝에 229억원 투자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업체는 골프장 순수익금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았지만, 광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서진건설과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 성격으로 지급한 48억원 상당 좌수표의 현금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

협약 결렬 책임 소재 공방은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력이나 협상력 부재로 사업을 그르치고 나서야 후속 대책을 고심하는 광주시를 놓고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 같다는 냉소도 나온다.

광주시가 행정 신뢰도만 깎아 먹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관광단지 조성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한 상황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낮은 수익성 예상에 선뜻 사업자가 나설지도 불분명한 데다가 수익성을 높이려고 상가 시설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중소 상인 등의 피해와 반발이 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와 민간이 같이 하는 방법, 민간에 맡기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곡성군은 곡성을 신월리의 농지 1.1ha를 매입해 관리사무실 1동, 스마트시설하우스 5동을 갖춘 과학영농실증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 곡성군 과학영농실증포 조성... 특화작목 발굴

올해부터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곡성군은 곡성을 신월리의 농지 1.1ha를 매입해 관리사무실 1동, 스마트 시설하우스 5동을 갖춘 과학영농실증포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곡성군은 과학영농실증포를 지역특화품목 연구와 시범포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 새로운 특화품목 발굴 및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농가 수준별로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지원해 농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지난 2일 2020년도 시무식을 마치고 새해 첫 업무로 과학영농실증포 현장을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시범포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향후 곡성군은 과학영농실증포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 농업 관련 연구 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일단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미생물배양장 시설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대상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 귀농인이나 청년창업농업인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 담양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 RPC 통합 순항

〈미곡종합처리장〉

중장기적 생산·유통계획 등 군의 염원인 RPC 통합 박차

담양군이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식량작물의 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식량생산 다각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계획, 투자계획 등이다.

군은 지난 2018년 11월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타작물 전환 계획,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담양군청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어 지난해 11월 농식품부에 종합계획 선정요청서를 제출해 3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승인을 받아 군의 염원인 RPC 통합의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에 따

라 군은 향후 5년간 농식품부 연계 지원사업인 들녘경경제 육성사업,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RPC 시설현대화, DSC 시설지원) 등의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공공비축미 우선배정, 정부보급종 공급 우선배정, RPC 비매입자 금 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등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협 RPC의 통합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2019년 7월에 RPC 통합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종합계획 승인으로 RPC 통합에 순조로운 향배가 예상된다"며 "승인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토대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해 담양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 전남도, 도로정비 1584억 투입... 상반기 85% 집행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58개 지구 장성 북하~도계 3.5km 올해 마무리

전남도가 올해 도로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역 발전 기틀을 다지고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5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58개 지구, 248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계획의 85% 이상을 신속히 집행, 정부의 재정집행 목표치(62%)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도로별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7개 지구 46km에 724억 원이 투입된다.

장성 북하~도계 간, 남평~화순 간 등 6개 지구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신규지구인 해남 북평~북일 간 5.9km는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성 북하~도계 간 3.5km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가 준공되면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장성호 유원지 연결이 원활해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51개 지구 202.5km로 860억 원이 들어간다.

31개 지구 113.26km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무안공항 진입도로와 해남 송지~고담 IC 등 2개 지구는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진까지내재, 무안 원동~청룡 2단계 등 2019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과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완성을 위한 신안 장산~자라간 연교, 완도 당목우회도로 등도 착공한다.

그동안 장기간 공사로 주민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무안 일로~시중, 영암 은곡~매월 등 설계 완료 후 미착수한 지구는 '선 보상, 후 착공 방침'을 반영키로 했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와 물류비용 절감, 주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이 조기 개통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상반기까지 사업비의 85% 이상을 신속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8

1월 6일 (월)  
음력 : 12월 12일

수도권 날씨  
0 ~ 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4/4, 동두천 -3/3, 백령도 3/4, 파주 -4/2, 서울 0/4, 양평 -2/4, 인천 1/4, 수원 1/5, 용인 1/5, 평택 -1/5, 가평 -5/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